



# 정교회주보

제2458호

2024.02.04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아토스 성산의 수도원 탐방 5> 바다에서 80m 높이의 가파른 절벽 위에 자리한 디오니시오스 수도원(사진)은 1380년 카스토리아 출신의 성 디오니시오스 수도자에 의해 설립되었다. 성 세례자 요한의 오른손 성해가 안치되어 있고 희귀본 성서와 고전 및 교회 문헌들, 수 천 권의 도서, 수많은 성화, 1,000장 이상의 양피지와 종이 문서가 보존되어 있다. 수도원 안에는 14개의 성당이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입당 축일  
다음 주일  
성 이시도로스 수도자  
(제2조 • 조과 복음 2)

###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2조 부활 찬양송 ..... 81
- 수도자 찬양송 ..... 85
- 성당 찬양송
- 주님 입당 축일 시기송 ..... 164
- 사도경 : 고린토 후 4,6~15 · (봉)248
- 복음경 : 마태오 22,35~46 · 118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 예수님을 보십시오

“선생님, 예수를 뵈게 하여 주십시오.”(요한 12,21)  
몇몇 사람이 사도 필립보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내가 성령께 드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님이신 성령이시여,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느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마태오 5,8 참조) 산상 설교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들은 단번에 복음의 중심에 섭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너무 단순합니다. 하지만 정념으로 혹은 제자리를 찾지 못한 인간의 지식으로 시선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시선을 다시 배우고 회복해야만 합니다.

'예수' 중에서

# 주님의 입당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 머물던 때에는 하느님과 얼굴을 맞대며 대화하고 동산을 거닐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로 사람은 하느님 앞에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두려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있었다. 하느님께서 이들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경위를 물어보시자,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서로 떠넘기며 변명하였다. 그러나 명령을 어긴 그들을 주님께서 결국 에덴동산에서 추방하셨다.

이렇게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은 하느님을 마주하며 바라볼 수가 없었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때 지도자로 세우신 예언자 모세도 하느님의 뒷모습만 볼 수 있었고, 이정표 없는 사막에서 길을 인도해 주실 때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의 모습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없었던 주님을 다시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축복된 날이 바로 2월 2일 주님의 입당 축일이다.

성모 마리아께서 첫아들을 낳아 이름을 예수라 지어주시고 40일째 되는 날 율법에 따라 만아들이신 예수님을 지성소에 입당시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곳에는 성령에 이끌려 성전에 들어온 예언

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정결 예식을 치르러 온 성모 마리아께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오시자, 시메온은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주님을 찬미하였다.

주님께서 시메온 품에 안기신 이날은 사람이 타락하여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후 처음으로 주님과 얼굴을 마주 보며 만나게 된 날로서, 교회는 2월 2일을 '주님 입당 축일'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던 시메온이 주님과 만남을 갖게 된 순간 사람들은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주님께서 성전에 입당하심으로써 시메온은 평화롭게 눈을 감을 수 있었고 구원을 볼 수 있었다. 우리도 시메온의 기도처럼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마치고 마침내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눈을 감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성찬예배나 만과 마무리 부분에는 시메온의 기도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감게 되었나이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나이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나이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되나이다."(루가 2,29-32)

#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곳

디미트리 스미르노프 대신부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겠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하겠다.”(마태오 10,32-33)

위 구절에서 ‘증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우리 이마나 옷에 ‘나는 정교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쓰고는 거리를 걸어간다면, 그건 단지 사람들을 웃게 하는 일일 뿐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충분할 정도의 말을 들었으며, 이제는 행동이나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마태오 5,13-16)

세상의 많은 사람이 “음행과 더러운 행위와 욕정과 못된 욕심과 우상숭배나 다름없는 탐욕

따위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고,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비방과 또 입에서 나오는 수치스러운 말... 거짓말로 서로 속이”며(골로사이 3,5-8)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삶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며, 도리어 “따뜻한 동정심과 친절함 마음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서로 도와주고 피차에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서해 주”며 살아가야만 합니다.(골로사이 3,12-13)

‘증언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정교인이 되게 하거나 금연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하고 간섭하지 않지만, 대신에 우리는 또 다른 삶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따라서 생각 없이 살거나 세속적인 삶과 뒤섞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달라야만 합니다. 곧,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닌 삶이어야만 합니다. 같은 이유로 수도 생활도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면서 사막에서 번성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 자신이 증언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신 아들 그리스도께서도 하늘의 성부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 소 식

### ■ 대교구 겨울 수련회 공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 수련회가 열립니다. 다음 주일(11일)까지 각 성당 사무실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2/14(수)-17(토)

장소: 춘천 성 보리스 성당 사회복지관

참가비: 9만원

### ■ 부산 성당 어린이집 겨울 수련회

지난 1월 26-27일(금-토)에 부산 성모희보 성당에서 어린이집 6, 7세 어린이들과 졸업생들의 겨울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 운영되는 수련회는 정교회를 널리 알리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해주신 교사들과 여성회, 청년회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설날 예배 안내

오는 10일(토)은 설 명절로, 교회에서는 조상들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들을 기리는 추도식이 거행됩니다. 예배 시간은 각 지역 성당에 문의 바람, 풀리바를 준비하여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당에서는 9시 30분부터 성찬예배와 추도식이 거행됩니다.) 이번주 금요일 금식은 설 연휴로 해제됩니다.

성인의 가르침

## 평화와 조화를 찾는 방법



사부 중 한 명이 주목할 만한 조언을 해주었다.  
"만약 그대와 다른 누군가 사이에 안 좋은 대화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자기가 말한 것을 부정하면, 그대는 '왜 그 말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냐?'고 고집 부리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가 다시 그대와 반목해서 이렇게 말하며 다툼이 더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그게 뭐 어때서?'  
그러니 서로 간에 오간 상처 되는 말들은 깨끗이 잊어버려라. 그러면 서로 간에 평화와 조화가 찾아올 것이다."